

## 일본 ‘한국문학사’에서의 한국고전문학사 인식과 서술양상\*

류 정 선

(인하공업전문대학)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고전문학사를 중심으로 일본문학사와 남북한 문학사와의 문화횡단적 양상을 살핌으로써 한국문학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양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 분석대상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를 저술한 김동욱과 변재수이다. 일본문학과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저술한 변재수의 『조선문학사』(1985)는 자국문학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인식이 서로 달랐다. 이것은 무엇보다 분단체제로 인한 남북한의 문학사가 이질적으로 전개되는 현실에서 그들의 『조선문학사』는 남북문학사의 균열상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한문문학의 가치와 향가, 한글창제, 그리고 판소리의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문학으로서 한글문학과 한문문학이 서로 상호작용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본어판 『조선문학사』의 저술의의는 민족주의적 시각하에 일반적으로 한국문학을 중국문학의 아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문학의 가치를 재정립시키고, 일본인에게는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재일동포에게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문화횡단, 한국고전문학사, 일본문학사, 김동욱과 변재수, 북한문학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5939).

## 1. 들어가는 말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자국문학사 저술을 시작한 일본은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 애국심의 발화 수단으로써 국문학을 매개체로 이용했고, 동경제국대학 중심의 국문학자들은 그 실천의 선두가 되었다. 이어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 또한 조선통치를 위한 연구였으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조선문학 연구가 아닌 조선학 연구였다. 이에 저항감을 느낀 국문학자들은 조선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1945년 해방 후 조선문학사는 민족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족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하지만 1950년 이후 자국문학사 저술은 남북분단의 희생물이 되었듯이 문학사의 이념 또한 정치적 이념에 깊이 개입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사상적 이념은 다르지만, 1970년대부터 일본이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소수의 국문학자들은 일제 강점기에 왜곡 당한 한국문학의 가치를 재정립시키고 일본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저술을 간행한다.

일본어판 한국(고전)문학사로는 일본인이 저술한 것은 거의 전무하고, 기존 한국어판 국문학사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간행한 김사엽(金思燁)·조연현(趙演鉉)의 『朝鮮文學史』(1971), 김사엽의 『朝鮮文學史』(1973)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번역물과는 달리 일본어판으로 직접 출간한 저술로는 김동욱(金東旭)의 『朝鮮文學史』(1974), 변재수(卞宰洙)의 『朝鮮文學史』(1985)가 있다<sup>1)</sup>.

지금까지 선행연구로는 해외의 한국문학사와 관련하여 조동일의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1993)이 있으며,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로는 서재곤의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 시론』(2007)과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재고』(2008)<sup>2)</sup>가 있다. 조동일의 연구는 동아시아 문학사 전반을 정리하며 문학사

---

1) 일본어판 저술로는 변재수 이후, 김윤호(金允浩)의 『物語 朝鮮詩歌史』(1987)가 있지만, 본격적인 문학사로 보기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서재곤의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재고」(『일본어언문화』 12집, 2008)는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시론」(『세계문화비교연구』 18집, 2007)을 보충한 것으로, 한류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처음으로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그동안 새롭게 발견된 해외 한국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서재곤의 연구는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이들의 논의는 일본에서 번역되거나 저술된 한국문학사의 종류와 흐름을 거시적으로 소개하고 개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現) 연구의 상황 속에서, 일본어판 한국문학사를 대상으로 일본문학사, 그리고 남북한문학사를 함께 비교, 점진한 문화횡단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찰은 해외한국문학사의 문화횡단적 관점에서 번역본이 아닌 일본어판 저술을 직접 간행한 김동욱의 『조선문학사』와 변재수의 『조선문학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국문학사에 대한 인식과 고전문학사의 서술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 유학생 김동욱과 러시아문학 전공자로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닌 재일조선인 변재수가 기존의 자국문학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인식하였고, 일본어로 한국(조선)문학사를 저술한 동기와 의의는 무엇이며, 고전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이념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남북한 고전문학사의 서술체계와 문학사간 인식의 동이(同異)점을 읽어내는 작업이라 하겠다.

## II. 일본의 자국문학사와 조선문학사

일본에서 교육받은 김동욱과 변재수의 문학사관은 일본문학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 자국문학사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 또한 일본문학사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문학사의 출발은 미카미 산지(三上參次), 다카츠 쿠와사부로(高津鐵三郎)의 『日本文学史』(1890)로부터이다. 중국에서는 1910년 무렵 황인(黃人)의 『中國文學史』가 저술되었고, 한국 최초의 문학사 저술은 1920년대 안확(안자산)의 『조선문학사』(1922)로, 일본의 자국문학사 저술은 동아시아의 선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자국문학사의 성립에 있어 일본의 전

례(前例)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했으며, 한국문학사의 서술에 있어서도 일본의 자국문학사 방법론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자국문학사 저술은 국학적 전통에 기반을 둔 동경제국대학의 국문학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럽의 문학사, 특히 텐(Taine)의 영향을 받은 미카미 산지, 다카츠 쿠와사부로가 저술한 일본 최초 문학사인 『일본문학사(日本文学史)』(1890)<sup>3)</sup>는 총론에서 문학사란 무엇이며, 문학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리고 문학의 종류에 대한 논의와 서술방법 등의 문학이론을 전개하고 있다<sup>4)</sup>. 또한 자국문학사 저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문학사는 자국을 애모(愛慕)하는 관념을 깊게”하는 효용이 있고, 자국문학 저술의 의의는 “그 나라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국문학이란 “그 국민이 그 국어에 의거해서 그 특유의 사상, 감정, 상상을 기술한 것”<sup>5)</sup>을 의미하기에 일본문학에서 한문문학은 모두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자국문학사 저술에 있어 한문문학의 수용여부는 일본문학계나 한국문학계에 있어서도 많은 논쟁의 중심이 된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준 것은 하가 아이치(芳賀矢一)의 『국문학사십강(国文学史十講)』(1899)으로, 조동일은 “일본문학 연구의 학풍을 문헌학의 방법을 근간으로 해서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일본문학사 서술의 본보기를 보여준 의의가 있다”<sup>6)</sup>고 평하고 있다. 하가 아이치의 일본문학사의 특징은 애국주의와 문헌학을 병행시킨 것으로, 그의 문헌학적 방법론은 조선문학 연구의 기본적인 틀로 적용되었고, 그 주축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문학 강의를 했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교수이다. 일본문학사가 동경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조선문학사도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3) 조동일은 일본이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자국문학사가 일찍 정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에서는 자국문학의 독특한 가치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전통이 문학사 서술에 크게 자리 잡아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했다”고 평하고 있다(『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69쪽).

4) 류준필, 『자국문학사의 인식과 서술양상』, 소명출판사, 2013, 297쪽 재인용.

5) 류준필, 위의 책, 299쪽.

6) 조동일, 위의 책, 44쪽.

동경제국대학 출신 다카하시 토오루는 『조선문학연구(朝鮮文學研究)』(1927)에서 조선문학의 시대적 범주를 “현대 일본 및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대”라고 밝히고, 그 대상은 “시문가요의 순문학은 물론이고, 고래(古來) 조선인의 사상 및 신앙을 표현한 유학 및 불교에 관한 모든 저술, 조선인의 이상적 생활과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한 모노가타리(物語), 비사(秘史), 소설류 등을 총괄하는 문학적 산물”<sup>7)</sup>로 규정하고 있다.

다카하시 토오루에 대해 본 연구의 고찰대상인 김동욱과 변재수의 비평 또한 일본인에 의한 조선문학 연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표출되어 있다.

김동욱은 조선고전문학 연구가 경성제국대학 조선문학과의 일본인 교수진들에 의해 개척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당시 그들(다카하시 토오루, 오구라 신편(小倉進平),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관심대상이 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조선의 유학, 불교 등에 국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유교, 불교, 설화, 민요 등의 일련의 연구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통치상 필요한 것이었다”<sup>8)</sup>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유교, 불교, 민속 등 다방면의 저작을 남긴 다카하시 토오루의 “한문으로 쓴 조선의 전적(典籍)은 동양 공통의 문어(文語)이다”<sup>9)</sup>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의 한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김동욱은 제국대학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조선문학 연구가 조선을 알고자 함에서 출발했지만, 조선인의 입장에서 쓴 연구가 아닌, 학문적으로 도급한 일본을 위한 연구였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변재수도 자신의 『조선문학사』 서장에서 다카하시 토오루가 조선문학을 중국의 모방자라고 보는 견해, 즉 “정치방면 보다 더 중국문화에 예속(隸屬)된 문화적 종속성의 강도, 바꿔 말하면 문화적 독창성의 결여(朝鮮文

7) 高橋亨, 『朝鮮文學研究—朝鮮の小説』, 『日本文學講座』 第12卷, 新潮社, 1927 (박광현, 「경성제대 ‘조선어학 조선문학 강좌연구-다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432쪽에서 재인용). 박광현은 다카하시 토오루의 『日本文學講座』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 “아이누문학, 류큐(琉球) 문학과 함께 조선문학을 특수한 존재로서 구분하여 ‘제국’의 문학사 기술이라는 편집의도에 따라 ‘국문학’(일본문학)에 편제하려 했던 첫 시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422-423쪽)참조.

8) 김동욱, 『朝鮮文學史』,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314쪽.

9) 김동욱, 위의 책, 315쪽.

学研究』『日本文学講座第15卷, 1932, 新潮社』)로 본 시각은 ‘망단(妄斷)’의 관점이며, “일본인에 의한 조선문학 연구는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함”<sup>10)</sup>이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김동욱과 변재수에게 있어 일본인에 의한 조선문학사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일본을 위한 조선학이었고, 조선문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문학사에 흡수, 편입시키려는 작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에서 교육받은 김동욱과 변재수는 남북한의 사상적 이념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지식인들에게 왜곡 당했던 조선문학의 우수성, 민족성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를 저술하고자 했다는 데 공통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김동욱(金東旭)의 『조선문학사』

나손(羅孫) 김동욱(1922~1990)<sup>11)</sup>은 1941년 일본 추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에 입학, 1943년 졸업 후, 교편을 잡았다가 다시 1947년 서울대학 문리대(文理大) 국문과에 편입학하여 국문학 연구에 첫 발을 내딛는다. 그의 국문학 연구의 시작은 1950년대 ‘국어국문학회’활동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국문학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과도기로

10) 변재수, 『朝鮮文學史』, 靑木書店, 1985, 4쪽.

11) 김동욱(1922~1990)은 충남 홍성출신으로 1959년 이하윤(異河潤)과 함께 비교문화회(比較文學會)를 창설하고 1955년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거쳐 1963년에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취임, 1968년 서울대학교에서 논문 「판소리계 소설의 실증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후 1971년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1973-1975년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학사(燕京學舍)의 지원을 받아 교환교수로 재직, 민속학회 이사 및 한국비교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한다. 또한 1978년 한국복식연구회를 발족하여 동북아시아 연구회를 결성, 1981년에는 일본 도호쿠대학(東北大學)의 초청으로 교환교수로 재직, 1986년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을 역임한다. 주요저서로는 『국문학개설』(1961), 『한국가요연구』(1961), 『춘향전연구』(1965), 『한국복식사연구』(1974), 『국문학사』(1976), 『춘향전 비교연구』(1979) 등이 있으며, 자료집으로 『고문서집진(古文書集眞)』(1972), 『고소설판각본전집(古小說板刻本全集)』(1973·1975) 등이 있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categoryId=2017.07.13> 참조.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 속에서 김동옥은 자신의 『조선문학사』 저술을 통해 기존 국문학 연구에 대한 평가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조선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자국문학사에 대한 인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럼, 김동옥의 자국문학사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인식 아래 탄생한 일본어판 『조선문학사』의 저술의의, 그리고 고전문학사의 서술체계와 이념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자국문학사에 대한 김동옥의 인식과 일본어판 『조선문학사』

김동옥은 자신의 『조선문학사』 부록에서 조선문학 참고문헌, 조선문학사 연표, 조선문학 발전표와 함께 기존 조선문학 연구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먼저, 김동옥은 안학의 『조선문학사』(1922, 韓一書店)에 대해 “조선인에 의해 쓰인 최초의 문학사이지만, 일관된 체계도 없고 신라 화랑도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시 일본정신을 논한 일본의 저서에 반발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의도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313쪽)고 평한다. 또한 초창기 국문학연구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고증과 감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사상적 배경은 유교와 민족주의로 집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1930년대 초, 경성제대 조선문학과 출신들<sup>12)</sup>이 모여 조직한 「조선어문연구회」에 대해서는 국문학연구 분야의 최초 학회로서 조선문학 연구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해방 후 조선문학과 출신들의 조선문학 연구는 좌우익의 투쟁 속에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회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 가운데, 다카하시 토오루의 제자이자 경성제국대학 조선문학과 1기 졸업생인 조윤제에 대해서는 조선국문학의 개척자로서 “문헌학적 방법에 의해 국문학을 체계화한 공은 크다”(317쪽)고 인정하는 한편, 그의 민족사관은 소박한

12) 경성제국대학교 조선문학과 출신자의 국문학 연구로는 김태준 『조선소설사』(1931)·『조선한문학사』(1931), 김재철 『조선연극사』(1939), 조윤제 『조선시가사강』(1937)·『한국시가연구』(1948)·『국문학사』(1948)(이후 改稿해서 현대문학도 첨부하여 『한국문학사』(1963)로 출판), 그리고 고정옥 『조선민요연구』(1949),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1955) 등이 있다.

것이었으며, 그것은 “일본학자들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항의 식에서 생겨난 것이다”(318쪽)라고 평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써 문학연구에 임한 태도로 조선 국문학계에 음성적인 병폐도 가지고 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권회복투쟁으로써 ‘한글’운동이 국문학 연구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민족사관적, 국학적인 국문학사는 문학이 없는 문학사로 보는 견해가 김동옥에게 엮인다. 뿐만 아니라 김동옥은 당시 국문학 연구의 문제점을 전통의 부재, 방법론의 부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의 단절로 인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김동옥의 국문학 연구는 문헌학적, 실증적 연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그는 1974년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를 출간한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학사가 소개된 것은 김사엽, 조연현의 『조선문학사』(1971, 北望社)이다. 여기서 조연현은 근대문학을 담당했고, 그 이후 김사엽은 조연현의 근현대문학을 제외하고 고전문학사만 편집해서 『조선문학사』(1973, 金沢文庫)를 출간한다. 김사엽의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는 한 국문학에 친숙하지 않은 일본 독자를 위해 조선 역사의 흐름과 각 시대의 문화사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선 고전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책은 원래 김사엽이 한국어판 『국문학사』(1948, 정음사) 출간 이후, 1954년 판 개고를 번역한 것이다.

초판에서는 일본문학사의 시대구분과 같이 상고, 중고, 근세로 분류했지만, 개고에서는 왕조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상고, 삼국시대, 고려, 이조, 현대로 나누고, 각 절마다 시대 개관과 함께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김사엽은 초판 『조선문학사』에서 한문학은 국문학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한문학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은 국문학을 살살이 찾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문학사가의 임무<sup>13)</sup>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김사엽의 입장은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들이 국문문학은 도외시하고 한문 자료에 취중해서 문학연구보다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조선학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사엽은 1954년 개고판에서 한문학을 조선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견해를 소개한다. 김사엽이

13) 조동일, 앞의 책, 120쪽의 평에 의한다.



『조선문학사』의 초판과 개고판에서 한문학의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혼돈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의 『조선문학사』의 저술의의는 무엇보다 기존 일본의 조선학연구가 역사학 중심이고, 제대로 된 조선문학사 관련 저서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술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선문학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1945년 해방 전후에 출간된 조선문학사를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것<sup>14)</sup>은 일제강점기시대 일본지식인들에게 왜곡당하고 평가절하된 조선문학을 재정립하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문학의 소개와 이해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동욱은 다른 국문학 연구자들과는 달리 번역본이 아닌 먼저 일본어판 『조선문학사』(1974년)을 출간한다. 이 책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선문학의 소개와 개설을 겸한 문학사로 조선문학사의 구조를 시대별, 그리고 장르별 서술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한일비교문학도표 및 조선문학사 연구서에 대한 평도 참고자료에 첨부하고 있어, 일본인들에게 조선문학사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다. 이후 김동욱은 역으로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국내에서 『국문학사(國文學史)』(1976, 日新社)로 출간하고, 1980년에는 영문판 『History of Korea Literature』(동양문고)를 출간하여 조선문학의 세계화에 앞장선다.

## 2.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본 김동욱의 『조선문학사』

김동욱은 해방 후, 비교문학을 최초로 조선에 도입한다. 그가 국문학자로 비교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은 일찍이 방 띵켄(Paul Van Tieghem)의 『비교문학』(1958년)을 번역, 출간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322쪽)<sup>15)</sup>. 이것

14) 그 외로 1975년 안우식이 본격적인 근대적 문학연구의 출발점인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3)(이후 1939년 학예사에서 재출간된 것)를 일본어판으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동양명저로 유명한 해본샤(平凡社)의 동양문고시리즈로 출간한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집필 동기 또한 일본에 의해 조선문학사가 제멋대로 정리되고 해석되는 것에 대한 충격과 올바른 자국문학사 성립의 중요성에 기인한다(서재근, 앞의 책, 100쪽 참조).

15) 여기에 대해서는 김양선, 「羅孫 김동욱 연구-국문학연구와 「국문학사」를 중심

은 그가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배경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김동욱의 비교문학적 관점은 같은 시기 일본 문학평론가인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의 『일본문학사서설(日本文学史序説)』(1975)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문학사 서술의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은 가토 슈이치의 『일본문학사서설』은 일본문화 전반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로서 서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일본문학사의 영역본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역사적 전환기를 중심으로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애국적 자부심의 원천이라는 낡은 관점을 넘어, 서양 및 중국문화과의 객관적인 비교론을 전개하여 일본문학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sup>16)</sup>.

이처럼 김동욱의 『조선문학사』와 가토 슈이치의 『일본문학사서설』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비교문학적 관점은 이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서술방법의 한 흐름으로, 이것은 김동욱의 『조선문학사』에서 “근래 여러 분야에서 「비교」라는 것이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13쪽)라는 지적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김동욱은 이러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조선문학사를 간결하게 서술해 나갔고, 한문학권 속에서 조선문학의 독자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것은 앞서 일본어 번역판 『조선문학사』을 출간한 김사엽이 한문문학을 국문학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국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시대구분의 기본적인 틀은 김사엽의 『조선문학사』와 비슷한 구조로<sup>17)</sup>, 김동욱은 『조선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상대문학>, <중세문학>, <근세문학>, <근대문학>으로 분류하여 시대별 역사적 배경과 문학의 특징을 장르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근

으로」(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3쪽)의 지적도 있다.

16) 조동일, 앞의 책, 60쪽 참조.

17) 김양선은 김동욱의 문학사 분류를 김사엽의 국문학사 분류로 보고 “각 장이나 절 속에 시대구분을 삽입한 것은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1948)와 김사엽의 『개국문학사』를 거친 뒤 김동욱의 맥에 이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앞의 책, 31쪽). 하지만 일본문학사와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경우, 김동욱의 문학사 시대구분은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濟一) 『일본문학사1955-1960』의 시대구분(총6권: 상대, 중고, 중세, 근세, 근대문학)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문학>부분을 제외하고 일본문학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고전문학사의 서술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대문학(원시부터 신라말기까지)>의 양상을 신화, 전설, 가요로 보고 있으며, “서사시의 전형인 가락국가의 수로왕전설(구지봉영신가)을 일본의 노리토(祝詞: 신에게 올리는 노래) 형식”(31쪽)으로 비교하고 있다. 특히 삼국통일기 7세기부터 고려중기 13세기까지 이어져 온 향가의 향찰은 일본의 만요가나(万葉仮名)와 같은 노래 표기법으로 한일 두 민족에 나타난 자민족문학의 맹아(萌芽)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향가의 장르를 불찬, 민요, 무가(舞歌)로 분류하고, 종래 불교적 가요로 인식된 향가의 불찬을 중국의 한찬(漢讚: 범패梵唄), 일본의 화찬(和讚) 등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각은 타(他) 연구자와 다른 독창적 입장이라 하겠다.

더불어 김동욱의 민족학적 관점은 처용가를 무속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나 연극을 문학적 예술의 한 형태로 보며 문학의 범주로 포함시켜 일본의 가구라(神樂)와 우악(高麗樂, 百濟樂, 新羅樂)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세문학(고려시대의 문학: 10-14세기)>의 특징을 패관소설, 설화, 전설, 전기, 고려가사로 보고 있다. 특히 패관소설을 이야기문학에서 문장문학으로, 수이(殊異)세계의 문학에서 감상의 문학으로 이행한, 소위 현실에 대한 흥미를 허구문학으로 승화시킨 소설의 발전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이 시기의 패관소설이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민중의 것이 아니라 학자·문인의 문장취미”였고,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패관문학은 “민중의 토양에서 뿌리를 내린 웅대한 서사시를 탄생시킬 수가 없었다”(79쪽)고 평한다.

또한, 민족문학으로서 상대설화·전설의 보고(寶庫)인 『삼국유사』에 대해 김동욱은 그 편찬의도가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전해진 가장 오래된 설화집인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9세기 초)의 계통으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 불교설화 『해동고승전』은 일본의 대표적인 설화집인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12세기 초)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81쪽).

한편 고려가사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해 김동욱은 “일반적으로 국문학사가(國文學史家)들이 고려시대를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론자는

질적으로 국문학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다”(86쪽)며, 그 대표적 작품으로 균여의 『보현십원가』11수를 들고 있다. 그리고 ‘경기체가’의 서정가요를 일본 와카(和歌)에 해당되는 단시형 문학형식으로 평했으며, 악장과 무악(舞樂)도 넓은 문학사 범위에 포함시켜 신라시대부터 내려와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로 정착한 팔관회(八關會)의 산대잡희(山台雜戲)를 중국의 산악(散樂)과 일본의 사이바라(催馬樂)로 비교하고 있다.

<근세문학(이조건국에서 갑오경장까지: 15-19세기)>시대의 사상적 배경인 유교의 주자학 논리는 이태계로부터 철학으로 완성되었고, 일본의 학자에 이어져 명치 23년 ‘교육칙어(教育勅語)’의 기본정신이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 시기 사대부사회에서 유행한 가사(歌辭)는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를 구한 은자문학이자, 사대부의 허작(虛作)으로 김동욱은 일본 헤이안(平安)시대 귀족문학의 미학인 ‘미야미(雅)’의 개념으로 통찰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평론의 장으로서 사대부들이 비평가 역할을 한 한문체 패관소설과는 달리 조선의 국문 패관소설은 사대부에게 있어서 희작으로 이것은 일본문학과 조선문학이 다른 점(175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선산문 가운데 김동욱은 소설과 함께 ‘야담’에도 관심이 높았다. 고문체의 『전등신화』는 조선의 야담형태에 영향을 주었으며, 패관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읽을거리로 유행한 야담은 (민간)설화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설화문학을 조선 모노가타리(物語: 일본고대소설 장르)문학으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한편, 김동욱의 고전문학사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판소리를 국민문학으로 규정하고, 문학사 범주의 한 부분으로 설정해서 깊이 있게 서술한 점이다. 김동욱은 민중문학으로서의 판소리를 고대 민족문예의 재생으로 파악하였고, 일본어로 ‘우타모노가타리(謡物語)’<sup>18)</sup>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본의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와 비교하고 있다. 이처럼 김동욱의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는 시대별 고전문학사를 일본문학과 비교해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도 조선문학사 연표와 함께 일본문학사 연표를 나란히 배열시켜 일본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8) 서재곤은 ‘謡物語’라는 용어를 일본의 ‘歌物語’를 원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309쪽).

### 3. 김동욱의 고전문학사 서술체계와 이념적 특징

김동욱은 『조선문학사』서론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스스로 문헌학, 민속학, 비교문학, 서지학 등 ‘잡학성’(322쪽)을 띠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문학에 접근한 연구자이다.

김동욱은 조선문학의 주제의식에 있어 얼마나 충실한 ‘삶(生)’을 표현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선문학은 귀족, 양반의 ‘삶’을 표현하기에는 필요이상으로 충실했지만, 모든 국민 전체의 ‘삶’을 표현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평한다. 김동욱이 자신의 문학사 철학을 ‘삶’에 둔 것은 조운제의 『국문학사』(1949년)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김동욱이 자신의 『조선문학사』부록에서 조운제의 문학사에 대해 “그의 문학사는 「삶(生)」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유기적 민족사관을 제시했다”(317쪽)고 기술한 내용과 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철학을 근간으로 한 김동욱의 『조선문학사』 서술의 이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19)</sup>.

첫째, 김동욱은 서장에서 동양문학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선문학을 서구의 이론이 아닌 동양의 개념과 동양문학의 범주 속에서, 그리고 비교문학적 관점으로 조선문학의 가치와 독창성을 밝혀 민족적 긍지를 살펴보려 했다.

“여기에 서술하는 조선문학사는 물론 일본문학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 제국(諸國)의 문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아가서 근래 여러 분야에서 「비교」라는 것이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과 조선은 중국문화와 알타이계문화의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공통되고 있으나 중국문학의 수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13쪽)

19) 김동욱의 『조선문학사』 서술의 특징에 대해 조동일은 “한국문학사를 동양문학사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고 비교문학의 관점이 필요하다. 한문학을 소중하게 평가하고 판소리도 중요시하면서 사대부문학과 민중문학의 관계를 힘써 살피고 있다”고 평한다(앞의 책, 126쪽). 또한 서재곤도 그 특징에 대해 “(1)비교문학적 시점 가미 2)한문학을 국문학에 포함 3)문학을 동양적 개념으로 파악 4)원시서사시, 야담까지 문학으로 흡수 5)문화적 폭넓은 시야 6)판소리가 국민문학의 기점”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앞의 책, 308쪽).

둘째, 기존에 조선문학사 범주에서 배제되어 왔던 한문학을 전통문학의 계보 속에서 파악하여, “조선풍토에서 자라고, 조선인에 의해 쓰이고, 조선인이 인생을 기록한 문학이고, 중국의 음률과는 달리 조선의 음률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선의 것이다”(17쪽)라며 한문학의 위치를 강조, 한학자와 한문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셋째, 조선문예의 전통을 전승문학으로 파악하고, 중국문예에 동화해온 조선 한문학의 이질적인 요소의 근원은 전승문학에 있으며, 전승문학은 외래문학을 풍화시켜 조선의 풍토에 있던 새로운 문학을 창조해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동력의 중요한 요인은 한문으로 쓴 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한국의 소리로 읽는 언어적 표현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문화사적인 폭넓은 시야에서 문학을 다루려고 했다. 김동욱은 조선 “문예에 있어서도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선사회의 양상과 같이 「조선의 것」과 「중국, 서양의 것(타인의 것)」의 이중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선의 것’에 속하는 장르는 서사시, 민요, 설화 등 한글창제 이후의 한국문예이며, 범 동양적인 사고패턴에서 ‘우리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 불교, 도교적 주제 의식에 쌓아 올려진 많은 작품의 사상은 ‘우리 동양인’의 것이지만 그 표현은 조선의 것이라는 것이다(277쪽).

다섯째, 국민문학의 시점을 판소리 생성으로 파악하려고 한 점이 그의 조선문학사의 커다란 특징이다<sup>20)</sup>. 18세기에 생성된 판소리 문예는 국민문예로서, 국민문학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근대 신문학기에 여러 가지 문예창작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것은 판소리가 귀족문예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천민 광대의 민중시인의 문예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문학권 외의 민속학적인 문학발상을 통해 소위 소외되었던 원시 서사시, 야담 등을 정통문학으로 다루고, 민요, 설화, 탈춤 등의 극문학에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20) 김동욱이 이룩한 국문학의 최대 성과는 판소리 연구와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 연구』(1961)로 집약된다. 그리고 『한국가요의 연구』(1961)에서 다룬 「판소리 발생」 「삼입가요 연구」는 춘향전의 성립에 있어 근원설화, 삼입가요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기존에 설화 → 타령 → 서민소설이란 가설적인 선행논지를 근원설화 → 판소리 한마당 → 대본으로 정착 → 소설로의 정착이라는 전개도식을 실증적 논리에 의해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김동욱의 『조선문학사』는 문화나 민속학을 접목하여, 그리고 비교문학적 관점을 통해 고전문학의 미학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그 특징을 시대별로, “신라의 문학은 피안(彼岸)적이고, 고려의 문학은 청자문학이고, 조선의 문학은 백자문학이다. 각 시대의 속(俗)문학은 이러한 것이 속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280쪽)라는 평으로 총합한다.

#### IV. 변재수(卞宰洙)의 『조선문학사』

변재수(필명: 辛英尙<sup>21)</sup>)의 본적은 경상남도 섬천군, 1932년 나고야(名古屋)에서 출생하여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문학부 노문(露文)과를 졸업(1959년)하고, 이어 동대학원(同大学院) 석사과정을 수료(1961년)한다. 이후 (조선인민공화국)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로 재직(1964~1998년), 와세다(早稲田) 러시아문화회 회원과 조선작가동맹정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조총련 재일조선인으로서 김정일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김지하와 같은 남조선 시인들에게 관심이 많아, 최근에도 「조선반도와 일본의 시인들(朝鮮半島と日本の詩人たち)」(2016)을 집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변재수가 언급한 인민공화국 조선문학사의 흐름과 인식을 살펴보고, 변재수의 『조선문학사』와의 영향관계, 그리고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쓴 고전문학사의 서술체계와 이념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변재수의 저서로는 朝鮮作家同盟(著) 卞宰洙(翻訳) 『不滅の歴史—一九三二年』(1975), 『現代朝鮮文学叢書3』 『血の海』(1976), 『現代朝鮮文学叢書4』(1976), 『ある自衛団員の運命』(1978), 『現代朝鮮文学叢書5』(1981), 『恨と抵抗—金芝河と南朝鮮の詩人たち』(1981), 『祖国と青春と』(1985), 『南朝鮮の詩人群像-民主・統一の証言』(1996), 『作家と作品でつづるロシア文学史』(2005), 『朝鮮半島と日本の詩人たち』(2016)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김정일 저 『社會主義文化の建設』(2000), 『人間の証—『映画芸術論』(2000) 등이 있다.

## 1. 자국문학사에 대한 변재수의 인식과 북한의 『조선문학사』

변재수의 『조선문학사』(1985, 靑木書店)는 사회주의 문학관에 입각하여 기술된 문학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그의 『조선문학사』 저술 목적은 다음과 같다.

문학사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공화국에서 출판된 문학사는 현대에 사는 조선인에게 뛰어난 민족문화유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민족적 긍지를 육성하는 것에 커다란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인도) 공화국의 그와 같은 목적에 의거하면서도 주로 일본의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선민족의 정신적 영위의 결정(結晶)인 문학의 역사를 알았으면 하고 조선에 대한 이해, 한일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7쪽).

이처럼 북한의 조선문학사 연구 성과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변재수의 『조선문학사』의 저술 목적은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조선의 뛰어난 민족문화유산을 알리고 조선의 이해, 더 나아가 한일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고, 재일조선인 2세, 3세들에게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변재수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공화국에서 출판된 문학사’에 관한 사항은 종장에서 “자신의 조선문학사가 공화국의 문학사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서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히며 탈고한 책이다”(280쪽)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장에서 기술된 북한의 조선문학사 연구에 관한 개괄과 견해는 변재수의 자국문학사에 관한 인식이며, 그의 『조선문학사』 탄생에 있어서도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그가 소개한 북한의 조선문학사 개괄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본격적인 문학사가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59년 『조선문학통사』(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편, 과학원출판사 출간)로, 이 책은 원시시대부터 조국해방전쟁 후의 시기까지의 문학사를 상·하 2권으로 기술하고 있다<sup>22)</sup>. 그 뒤를 이어

22) 변재수의 개괄에 의하면, 1959년 『조선문학통사』(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편)의 상권 「고전편(원시시대-19세기)」은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1장 「7



1962년 대학용 교재로서 편집된 전 3권 구성의 『조선문학사』(교육도서 출판사)가 출간된다<sup>23</sup>). 그리고 1971년에 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강좌가 편집한 전5권의 『조선문학사』는 제1권 <원시시대부터 19세기까지>만이 고전편이고, 제2권~4권은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의 구성으로 근대와 현대, 특히 프로레타리아 문학평가를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중점을 둔 것이 종래 문학사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그 뒤를 이은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전5권의 『조선문학사』(1977-1981)<sup>24</sup>)는 김일성종합대학편의 『조선문학사』의 형식과 서술체계를 수용해서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변재수가 이 문학사를 “공화국 조선문학사 전문가 그룹이 공동 집필한 최근 성과의 집대성”(278쪽)이라고 평할 정도로, 이 책은 그의 조선문학사 서술방법에 있어 근간이 되는 기본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조동일 또한 변재수가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의 『조선문학사』를 “많이 참고하면서 요약하기도 하고 개작하기도 했다”<sup>25</sup>)고 지적했듯이, 변재수는 자신의 『조선문학사』의 기본내용을 이 책에 따르고 있고, 서술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의 『조선문학사』의 전체적인 틀은 제1권 <고대 중세편>, 제2권 <19세기말~1925년>, 제3권 <1926년~1945년>, 제4권 <1945~1958년>, 제5권 <1959~197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6</sup>). 여기서 고전문학사

세기 전반기까지의 문학」에서 시작하여 이후 종장까지는 각각의 세기 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장이 「시가」 「산문」 「극문학」의 세 장르로 분류되어 있고, 서술체제와 각 장마다 시대적 사조가 개괄되어 있으며, 작가의 약력보다 작품의 분석과 해석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276쪽).

23) 변재수의 개괄에 의하면, 1962년 『조선문학사』(교육도서 출판사)는 <1권:원시시대부터 14세기까지>, <2권: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3권:20세기 이후>의 구성으로 전반적으로 문학사 흐름을 기술하면서도 예를 들어 김시습, 임제, 정철 등과 같은 대표적인 문학자들의 생애와 작품에 관해 각각 독립의 장을 설정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76쪽).

2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전5권의 『조선문학사』(1977-1981)는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에서 연달아 펴낸 다섯 권 분량의 방대한 통사(通史)이다. 그 집필진을 살펴보면, 1권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집필(1977), 2권 박종원, 최택호, 류만 집필(1980), 3권 김하명, 류만, 최택호, 김영필 집필(1981), 4권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1978), 5권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1977)로 이루어져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북한문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 검색일 2017.07.14. 참조).

25) 조동일, 앞의 책, 143쪽.

부분은 김일성종합대학편의 『조선문학사』처럼, 제1권<고대중세편>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sup>27)</sup>, 그에 비해 중세시대의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광범위하다<sup>28)</sup>. 중세시대의 범위를 확대시킨 서술체계는 동시대 남조선의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982-1988)와도 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조동일의 경우 중세문학사를 좀 더 세분화시켜, 4권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sup>29)</sup>과는 차이가 있다.

- 
- 26) 변재수의 개괄에 의하면,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편의 『조선문학사』는 각각의 장마다 각 세기의 사회, 경제, 정치정세 및 문학사조가 주를 이루어 기술되어 있다. 시 작품의 현대어 인용과 해설이 있어 감상하기에도 편리하고, 중요한 소설 작품에 관한 개괄이 첨부되어 있어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김일성주석이 혁명투쟁을 개신한 1920년대 중기부터 1945년 조선해방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항일혁명투쟁기 문학을 혁명적 문학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오늘의 시점에서 명확히 규정해 한권(3권 부분)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시기의 혁명적 문학의 전통을 계승해 오늘의 주체문학의 개화를 가져온 해방 후의 문학(4권, 5권)인 현대문학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278-279쪽).
- 27) 「고대중세편」은 서장을 비롯해 전 9장 3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원시문학예술」, 제2장은 「고대문학」, 그 이후의 장은 세기를 구별해서 구성되어 있다.
- 2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조선문학사』에서 중세문학이 삼국시대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한 근거는 노예소유자사회가 봉건사회로 이행했다고 본 것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조동일은 중세시대의 기준에 대한 개념을 부정하며, 이 문학사가 “문학 담당층의 교체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봉건지배층을 나무라기만 하고 그 성격 분화나 변화는 살피지 못한 것은 아직 미흡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의존하기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평한다(조동일, 앞의 책, 140쪽).
- 29) 조동일 『한국문학 통사』(1982-1988)는 문학 갈래와 문학담당 층의 변천에 근거하여, <1권 원시·고대·중세 전기 문학>, <2권 중세 후기 문학(고려후기~조선전기)>, <3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제1기(조선 후기)>, <4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제2기(1860~1918)>, <5권 근대문학(1919년~1945년까지)>으로 시대구분을 한다. 그의 문학사는 정신사(精神史)와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를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과 문학사의 실상 사이에 존재한 괴리를 좁히려 했다. 특히 중세문학의 범위를 한층 넓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했으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라는 시기를 1기, 2기로 나눠 조선후기라는 복합적인 시대의 성격을 밀도 있게 서술하였다. 여기서 1860년의 기준은 동학이 성립되고 동학가사가 이루어진 것을 시대 전환의 기준점으로 삼았고, 1919년은 3.1일 운동을 그 기점으로 삼았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 검색일 2017.08.13. 참조).

한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조선문학사』가 문학의 인민성과 애국적인 내용을 평가의 두 가지 요건으로 삼고 있듯이, 변재수의 『조선문학사』 또한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북한 문학사의 인민성과 애국주의는 북한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훈주의적 정책인 반면, 변재수의 『조선문학사』는 재일동포 2, 3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변재수의 『조선문학사』에 대해서 조동일은 “민족적 관점을 강조한 특성이 있다. 한국문학은 중국문학의 아류라고 하는 일본인의 과오를 비판하고 재일동포 2,3세가 민족문화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강조하고, 시조, 가사, 국문소설이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어떤 구실을 했는가 힘써 논의했다”<sup>30)</sup>고 평한다.

조동일의 비평처럼 변재수는 서장에서 일본이 조선문학을 중국의 모방자 혹은 아류라고 보는 견해를 비판하며 “조선민족은 일찍이 원시문학을 만들어 냈고, 서사시로서의 무가(巫歌), 서정시로서의 민요, 가요, 신화, 전설, 설화 등 모든 조선민족의 독자성을 가진 구전문학에서 조선민족은 독창의 문학을 창출했다”(4쪽)고 반론하고 있다. 특히 민족정신과 생활, 풍속습관 등을 조선어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향례(鄉禮)는 민족적 시형(詩型)인 향가를 창출했으며, 이씨조선의 훈민정음 창시는 향가의 뒤를 잇는 시조, 가사 등의 시형을 새롭게 창조하여 조선가요의 정통적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한글문학의 출현은 국문소설의 육성을 가져오고, 서민계층이 문학의 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15세기 이후 조선문학은 세계문학의 주요한 위치를 점하는 독자의 민족문학으로서 개화해 갔다고 고전문학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변재수의 『조선문학사』에는 ‘고전문학은 민족문화유산의 하나’(4쪽)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듯이 조선민족의 문화기원과 고전문학의 전통을 강조한 변재수의 문학 가치관은 그의 『조선문학사』의 서술범위가 고전문학사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30) 조동일, 앞의 책, 143쪽.

## 2.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본 변재수의 『조선문학사』

변재수는 『조선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원시시대문학>, <고대문학>, <봉건사회 형성과 삼국시대문학>, <후기신라와 발해문학>, <고려시대문학>, <이조시대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변재수의 『조선문학사』는 ‘인민’을 주체로 시대별 문학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원시시대문학>의 기본적인 형태인 가요와 신화는 집단적 노동과 공동생활에서 탄생했으며, 고대국가의 출현과 관련된 신화와 설화는 “계급 국가 출현 이후 현실에 맞도록 윤색된 것이며,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한 건국신화는 통치계급의 권력을 신성화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14쪽)고 한다.

이어 <고대문학>장르에 있어 고대 설화문학은 건국신화, 전설, 민담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고대사회의 지배계층은 건국시조를 신비화하고 그들의 국가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문학과 예술을 이용했다고 변재수는 논한다. 또한 이 시대 “고대가요문학에서 특징적인 것은 개인 창작에 의한 서정가요가 발생한 것”이고, 이 시기의 사회적 사상과 의식의 지배적 형태는 종교와 관념론이라는 입장이다(17쪽).

한편 <봉건사회의 형성과 삼국시대문학>에 있어 사상의 중심에는 유교와 불교가 있지만, 변재수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유교는 봉건지배계층의 특권을 절대화하고 봉건질서를 합리화하며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할을 했다 ... 불교는 문화의 내용과 형식에 신비성을 부여하고, 인민의 일상적 생활을 솔직히 반영하는 문화의 창조를 억압하고,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짓누르고 물질적 정신적 문화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32쪽).

또한 변재수는 이 시기 봉건시대의 문화개화를 ‘중세문학의 발생’으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내용적인 면에서 봉건국가의 성립과 발전과정, 인민의 반봉건투쟁, 봉건통치자의 악정의 폭로, 인민의 정신적 미덕의 찬양 등 설화의 주제영역의 확대”(33쪽)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시대 구전문학과 기재문학은 각각 상대적 독자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특히 구전가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 것은 인민대중의 노동생활과 인정세태(人情世態)를 노래한 작품으로 봉건적 착취제도하에 그들의 생활감정이 그대로 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후기신라와 발해문학> 시대의 문학적 특징을 참요(讖謠)의 발생으로 언급한 변재수는 “독특한 민요의 형식을 가진 참요는 당시 현실에 대한 인민의 비판정신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다”(57쪽)고 평한다. 특히 향가에 대해 “불교적 성격을 띠는 향가는 불교적 공덕을 찬미함에 따라 인민의 반항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봉건통치에 종속시키는 사상적 역할을 수행했다. 7~9세기에 창작된 향가는 불교를 시작으로 반동적 사상에 영향을 받고 불교선전에 많이 이용당했지만, 이전 시기의 향가보다 세련되었으며 민족시가 창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62쪽)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문학>에 있어 중앙집권적 지배하의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반동적인 문학과 대립을 통해 발전했고, 반동적인 양반사대부들은 문학을 봉건통치의 강화를 위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했으며, 그 반동적 경향은 불교를 고취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변재수는 7세기 중엽부터 9세기에 나타난 산문 가운데 가장 예술적인 수준을 수이전체(殊異傳體)문학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기모노가타리(伝奇物語)(10세기 경) 장르와 비교하고 있다. 이어 10~12세기 수이전체 작품의 성행과 함께 연대기와 전기문학이 육성되고, 그 작품들은 국가의 수호를 위해 싸운 조선인민의 모습과 압박받은 인민의 생활상, 인민의 창조적 지혜와 예술적 재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봉건국가의 모순을 지적한 변재수는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있어서 문학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문학상의 제1의 특징은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민중의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여 현실의 불합리와 지배계층의 악정을 비판한 작품, 애국적 감정을 반영한 작품이 많이 탄생한 것. 그리고 제2의 특징은 현실 발전과 민중의 미학적 요소의 고양에 따라서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고 다양하게 발전 것이다.”(99쪽)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탄생에 있어 구전가요 장르에 위치를 접하는 것은 고려국어가요, 즉 참요이고, 이 시기에 새롭게 경기체가, 시조 등의 민족시가의 형식도 확립되는 한편, 산문분야에서는 의인전기체 문학과 패관(稗說) 소설이 진보한 것이 특히 가치가 있다고 변재수는 평한다.

다음으로 <조선시대문학>의 특징으로 패관소설의 성행을 들고 있다. 15세기 패관소설의 흥행 원인은 여러 가지 산문형식에서 다양한 내용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인민대중의 예술적인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패관소설에 영향을 받은 근세소설은 산문문학의 획기적인 전환이었으며, 15세기 이후의 역사적, 사회적 현상, 즉 인민대중의 사상적, 예술적 요구를 반영해서 출현했다는 견해이다.

또한 한글창제 후 16세기 국문시가의 활성화로 양반문인의 경기체가가 소멸되고, 국문시가(시조와 가사)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변재수는 강호문학<sup>31)</sup>과 도학시가<sup>32)</sup>의 퇴영문학에 대해 “현실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것은 분식(粉飾)하는 것에 의해 계급투쟁의 의식을 마비시킨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162쪽)고 평한다. 이와 달리 구전문학 가운데, 특히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참요는 주로 위정자의 반인민적 행위와 정치의 부패들을 도려내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어 임진조국전쟁 이후 반침략적 애국문학은 당시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하나의 사조를 형성하고 소설, 시 등 각 장르에 걸쳐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키는, 소위 조선문학의 보고(寶庫)를 풍요롭게 하였다고 강조한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의 소설은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강해지고, 농민봉기가 묘사되는 등 사회적 주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시기의 시가 또한 주제의 선택과 형식에 다양성을 갖춰 임진조국전쟁 이후의 사회적 모순을 담은 시가가 현실비판의 시적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평한다(201쪽).

31) 강호문학은 “자연에 대한 관조적 태도와 현실도피의 경향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어,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민중을 착취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는 양반계급의 취미인 퇴영적 문학이다”고 변재수는 논한다(162쪽).

32) 도학시가는 유교의 교리를 설교하는 교훈시가로 변재수는 삼강오륜의 유교사상과 봉건적 도덕규범을 언급하고 “민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반동적 성격의 문학”으로 보고 있다(162쪽).

다음으로 18세기는 조선문학의 개화기로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해 변재수는 봉건사회 붕괴의 촉진과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에 의해 근대적 요소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고, 18세기 소설의 주제는 당시 진보적 경향을 지닌 양반 출신의 문인들이었으며, 주로 구전설화에 바탕을 둔 국문소설의 창작이었고 한다. 그리고 그 주제는 봉건사회의 불합리와 부패를 비판, 봉건적 착취와 억압 속에 신음하는 민중의 생활상과 지배계급에 대한 반항정신 등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판소리(謠物語) 형식의 유행은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변재수는 김동욱과 같이 판소리 대본을 일본어로 '우타모노가타리(謠物語)'로 정의하고 '인민문학'으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변재수는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실학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실학과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임진란 이후 사회적, 역사적 조건의 산물로서, 문학사조로서 특징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 그 비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개선으로의 지향성과 조국을 부강하게 하려는 염원, 애국심의 표현 등은 실학과 문학의 기본적 특징이다(239쪽).

이처럼 변재수에게 있어 실학과 문학은 그의 문학적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한 장르라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초 중엽, 이 시기의 구전문학에 대해 변재수는 붕괴해 가는 봉건제도를 고집하는 양반관료에 대한 비판 등 반봉건주의 지향을 점차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며, '인민의 예술적 창조물'(244쪽)로서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평한다. 이 시기의 실학과 문학은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 침략에 반대하는 애국적 계몽운동의 시로도 계승된다.

변재수는 이조말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조선의 근대화를 저해하여, 조선은 반봉건적 식민지화 속에서 문학의 정상적인 발전도 저해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 속에서 이조시대까지 고전문학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였던 반침략 애국적 지향의 전통을 근대문학 이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도 더 선명하게 이어가게 된 것은 조선문학이 임진조국전쟁처럼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시

기에 가장 가치가 높은 문학을 발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원시시대부터 이조말기까지의 고전문학사를 서술한 변재수는 종장 예선 <고전문학의 전통과 현대의 「한국」 문학>이라는 부분을 첨부하여 “근대 이후부터 1945년까지의 조선문학의 주류는 단적으로 말하면 반일과 반봉건과 사회주의지향의 문학”(258쪽)이며, 한국(남쪽)에서 민주화를 위한 문학 또한 민중문학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변재수는 “조선민족이 독자의 단일민족이듯이, 그 문학도 독자의 문학”(258쪽)이라는 관점으로 조선고전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 3. 변재수의 고전문학사 서술체계와 이념적 특징

변재수에게 있어 ‘고전문학은 민족의 문화유산의 하나’(4쪽)이다. 변재수는 문학을 포함해 조선민족의 문화적 창조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민족의 기원과 원시적, 고대적 생활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때문에 그의 『조선문학사』에서는 근대문학사가 배제되고, 오로지 고전문학사만이 상세히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전문학사 서술에는 김동욱이 <상대문학>으로 통합해서 기술했던 부분을 <원시시대문학>, <고대문학>, <봉건사회의 형성과 삼국시대문학>, <후기신라와 발해문학>의 네 부분으로 세분화시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김동욱이 중세문학의 시대구분을 고려시대로 두었다면, 변재수는 삼국시대를 중세문학의 출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김동욱이 중세시대 개념을 일본문학사(중세시대: 13-17세기)의 시대구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변재수는 북한문학사의 영향 아래 조선고전문학의 우월성을 좀 더 강조하게 위한 의도로 삼국시대로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구분을 토대로 그의 고전문학사 서술체계와 이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재수에게 있어서 문학탄생이란, 창작되어진 사회적 역사적 조건, 즉 현실을 토대로 각 시대의 사회적 현실의 요구와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생겨난다는 개념이다. 그의 조선문학사는 이러한 개념을 근거(根底)로 해서 고전문학을 사회적 모든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각 시대 별의 작가, 작품의 의의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서술체계를 취하고 있다.

둘째, 변재수의 고전문학사의 특징은 문학의 주체가 ‘인민’이라는 것이



다. 조선의 고대 인민은 노예주의의 압박 속에서도 근면한 노동과 창조적인 지혜에 의해 고대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는 이러한 문학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투쟁하고 핍박받은 인민들의 삶을 작품 속에서 밝히고자 했다.

셋째, 그에게 있어 문학의 최고 가치는 사회 및 역사발전의 주체인 인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지향성을 가진 문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급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을 지향하는 문학이야말로 진정한 '민족문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거나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싸움을 주제로 한 문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6쪽).

넷째, 변재수는 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진보적'문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서장에서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계급사회에 있어 지배계층(통치자들)을 비판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와 현실을 비판해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외래침략자와 싸우는 민족의 긍지를 견지(堅持)하는 입장이다(5쪽). 이것은 변재수가 추구한 이상적인 문학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 VI. 나가는 말

자국문학사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현상이고, 일제강점기 자국문학과 문자는 내셔널리즘의 표상이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이 일본의 여덟 번째 제국대학이었던 것처럼, 일본에 의한 조선문학사는 제국문학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조선문학을 일본문학 속에 편제하려는 시도였다. 그 이후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조선문학 연구는 이러한 제국문학에 대한 도전이었다. 1945년 해방 후, 조선문학사는 민족문화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해 기술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에는 민족문학사 기술이 남북분단 이념의 희생물이 되었듯이, 자국문학사 서술에는 민족적·정치적 이념이 깊이 개입되어 갔다.

이러한 자국문학사 저술에 있어 일본유학생이었던 김동욱과 재일 조총련

계 변재수는 각각 일본인 대상으로 직접 일본어판 『조선문학사』를 출간한 것은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왜곡 당했던 조선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그들의 저술의의는 공통적이었지만, 남북한의 사상적 이념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다.

김동욱은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변재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조선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고 시대구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무엇보다 한문문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조선문학으로서 한글(국자)문학과 한문문학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향가나 한글창제, 그리고 판소리의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다만 김동욱은 좀 더 상세하게 각 시대 마다 한문학의 양상과 그 가치를 서술했으며, 향가부분을 향가의 생성, 장르, 표기, 향가와 불교적 발상 등으로 좀 더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그의 오랜 연구의 중심이었던 판소리를 문학사의 한 장르로 설정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 반면 변재수는 임진조국전쟁 전·후기의 문학과 실학과 문학을 한 장르로 설정, 애국심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찬양했으며, 조선현실에 대한 반영과 애국주의적 감정을 표현한 문학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동욱은 고려, 조선의 한문학, 그리고 한글창제 이후의 국문학이 이어지는 천 년간의 문학을 사대부의 문학으로 평하고, 그 사회체제의 특징인 귀족, 관료, 봉건제도하의 문학적 흐름을 인정하는 반면, 변재수는 이러한 봉건제도하의 문학을 부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더욱이 유교와 불교의 사상에 대해 김동욱은 동아시아 사고적 입장에서 ‘우리들 것’으로 인식했지만, 변재수는 인민의 반항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인 사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변재수에게 있어서 문학의 주체는 ‘인민’이며, 그의 문학적 가치는 조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하거나 항상 침략 당했던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외적과 싸우고 국가를 지키는 애국심을 모티브로 한 작품에 집중된다. 반면 김동욱은 ‘삶’을 주제로 한 작품에 중점을 두었다.

김동욱이 비교문학적 관점과 문화사적인 폭넓은 관점으로 조선문학사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기술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비교문학, 서지학, 민속학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그의 국문학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변재수 또한 지나친 사회주의적 사상에 치우쳐 문학사를 이념주의 사상의 매개체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고전문학을 통한 조선문화의 전통을 재일 2, 3세 조선인에게 각인시켜 조선인으로서의 긍지를 인식시키고자 한 것은 그에게 있어 커다란 과업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김동욱과 변재수의 일본어판 『조선문학사』의 출간 의의는 민족문학사로서 한국(조선)문학사의 국제화에 힘들게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김동욱과 변재수 이후로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저술은 정지된 상태이며, 특히 일본인의 한국문학사 저술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한일 한국문학사의 문화횡단적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라는 의식 속에서 좀 더 발전되고 활발한 한국문학사의 저술이 요구되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고노시 다카미츠 외, 『동아시아 고전학과 한자세계』, 소명출판사, 2016
- 김동욱, 『朝鮮文學史』,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 김양선, 「羅孫 김동욱 연구-국문학연구와 「국문학사」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2.
- 류준필, 『자국문학사의 인식과 서술양상』, 소명출판사, 2013
- 박광현,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연구-다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 변재수, 『朝鮮文學史』, 青木書店, 1985.
- 서재곤,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재고」, 『일본언어문화』 12집, 2008.
- \_\_\_\_\_,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시론」, 『세계문학비교연구』 18집, 2007.
- 신동욱, 「서평-김동욱 저 『조선문학사』(일문)」, 『아세아연구 19(1)』, 1976.
- 조동일, 『한국문학 통사』, 지식산업사, 1982-1988.
- \_\_\_\_\_,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_\_\_\_\_, 『문학사는 어디로』, 지식산업사, 2015.
- 토지문화재단 편,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3.
- 久松潜一, 『日本文学史』, 至文堂, 1955
- 加藤周一, 『日本文学史序説』, 平凡社, 1975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 (검색일: 2017.07.13.)
-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문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 (검색일: 2017.07.14.)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 (검색일: 2017.08.13.)

❖ ABSTRACT

The Perceptions and Description Patterns of the  
History of Ancient Korean Literature in  
Two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Japanese

Ryu, Jung-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wo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Japanese, taking special interest in ancient Korean literature, examining transcultural patterns between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 and that of Japanese literature, and thereby identifying perceptions and description patterns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two books with the same title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written in Japanese by Kim Dongwook and Byeon Jaesoo. The two books are not translations of Korean books but were written in Japanese for Japanese and ethnic Korean readers in Japan.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1974) by Kim Dongwook mainly compares Joseon literature with Japanese literature.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1985) by Byeon Jaesoo, an ethnic North Korean in Japan, was written from socialistic perspectives. The two books have different standards for evaluating value of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and different perceptions about it. Due to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unfolding in different ways in the two Koreas, and the two books reflect such differences. However, they have several common features. For example, they highly regard the value of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originality of *hangga* (a folk song of Silla), Hangeul (the Korean alphabet), and *pansori* (a form of Korean folk music in which a singer accompanied

by a supportive drummer sings and chants an epic story). In addition, they both demonstrated that literature written in Hangeul and that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teracted with each other as the same Korean literature. When the two books were writte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ad been considered a subunit of the history of East Asian or Chinese literature. However, as this study found, Kim and Byeon wrote the two books from a perspective of departing from this view based on nationalism, re-establishing the value of Korean literature, promoting Japanese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high quality of Korean literature, and imbuing ethnic Koreans in Japan with nationalistic pride.

Key Words : Cultural-translation,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History of North Literature, History of Japan Literature, Kim Dong wook and Byeon Jae soo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